

세계일보

국장 / 채수경

The Segye Times

제 7179

SATURDAY, OCTOBER 31 2009

브루클린 미술관 한국미술 소장품 관람

코리안아트 소사이어티

코리안아트소사이어티(KAS, 회장: 로버트 탈리)는 30일(금) 브루클린 미술관 한국미술 소장품을 둘러보는 행사를 가졌다.

이날 행사에는 하버드한국학연구소 에드 베이커 관장과 부인을 포함, 한국 고미술품에 관심이 높은 기관 대표 및 일반인 40여명이 참여했다.

이날 참석자들은 브루클린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고미술품 가운데 아직까지 세상에 공개된 적이 없는 소장품과 학술적이나 역사적

으로 가치가 높은 소장품 등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. 이날 미술관탐방의 하이라이트는 보존상태가 완벽한 노의, 그리고 조선시대 3대 목죽화가의 한사람으로 손꼽히는 이정(1578-1607)의 그림, 그리고 보존상태가 완벽한 왕관들이 있었다. 노의는 왕의 즉위식이나 혼례식 때 입던 적의에 준하는 옷으로, 활옷의 원형인 것으로 알려져있다.

한편, KAS 로버트 탈리 회장은 뉴욕 소재 문화예술기관이 소장중인 한국고미술품들을 직접 찾아 감상하는 행사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. 행사 참여는 KAS측에 문의할 수 있다. 웹사이트: koreanartsociety.org



코리안아트소사이어티는 30일 브루클린 미술관의 한국미술 소장품을 둘러보는 행사를 가졌다.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.